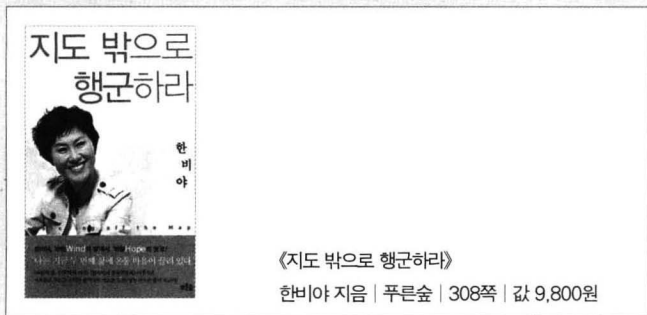


2005 '올해의 책, 베스트10'

2위~10위에 오른 책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쾌도난마 한국경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나의 생명 이야기》 《대화》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대담》 《블루 오션 전략》 《미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아 지음 | 푸른숲 | 308쪽 | 값 9,800원

◎ '세상의 잔인함, 따뜻함에 대한 깨우침'

세계 100여 개국의 여행기를 담은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꼬박 49일을 걷고 쓴 여행기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 꼬박 1년을 중국에서 지냈던 이야기인 《한비아의 중국견문록》까지, 한비아 씨의 일곱 번째 책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가 출간 직후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그녀의 이력을 봐서라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지여행가'로 우리 앞에 다가 온 한비아. 한비아 신드롬은 '여행'이라는 키워드에 있다. 누구나 관심 있어 하고 공감하는 그것을 보통의 여행전문가와와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한비아만'이 가진 매력이다. 도움이 필요한 세계의 한 단면을 소개해줌으로써 나누고 베풀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심리를 공략했다는 점도 한 요인이기도 하다. 이번 책에서 그는 월드컵 전 긴급구호팀장이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으로 돌아왔다. 당장이라도 긴급구호가 절실한 곳, 돈 몇 푼에 죽고 사는 사람들. 한비아 씨가 책에 담아낸 세계 곳곳의 절절하고 긴박한 순간은 생각했던 것보다 놀랍고 책으로 뒤쫓는 현지에서의 활동은 감동 그 이상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독자들이 한비아 씨에 대해 갖는 관

심의 여파가 다양한 이유다. 그녀의 재기발랄함과 활동영역에 대해, 국내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타국에서, 여성으로서 해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선망의 대상이다. 책 관련 TV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한비야가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은 직업에 대한 것이다. 한 방 청객은 "1년 간 인도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설득 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다"며 실제적인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온라인 서점 독자서평에 올라오는 글만 봐도 한비아, 그리고 책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한 독자는 "책 속에는 한비아라는 개인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 이제까지 가졌던 빈약한 세계관을 반성하게 됐다"며 "세상의 잔인함에 대해서, 따뜻함에 대해서 한수 배우는 느낌"이라는 서평을 남겼다.

정리_홍이현 기자



《쾌도난마 한국경제》
 장하준 · 정승일 지음 | 이종태 엮음 | 부키 | 240쪽 | 값 9,800원

◎ 명쾌한 시각의 '뒤집어본 한국 경제'

올 한해 가장 인상적인 경제경영분야의 저자를 꼽으라면 단연 장하준 교수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 교수는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다리 건너차기》 《개혁의

덧》《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구조조정》 등의 책을 통해 한국의 경제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

정승일 교수와의 좌담형식으로 나온 《쾌도난마 한국경제》는 한국경제에 대한 속 시원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외환 위기 이래 발생한 일련의 경제적 문제가 박정희의 경제 개발 노선 때문이 아님에도 모든 것을 박정희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비판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독립 기업이 등장하면 민주적인 노사 관계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생각에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장의 자유란 돈 많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신자유주의에 열광하는 현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 '명쾌하다'는 것이다.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 술술 읽히는 이 책은 기존 상식과는 다른 시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386세대를 비판하고 박정희식 개발정책과 재벌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부문은 독자의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리_ 신동섭 기자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안병수 지음 | 국일미디어 | 320쪽 | 값 11,000원

◎ 패스트푸드 문화에 대한 통렬한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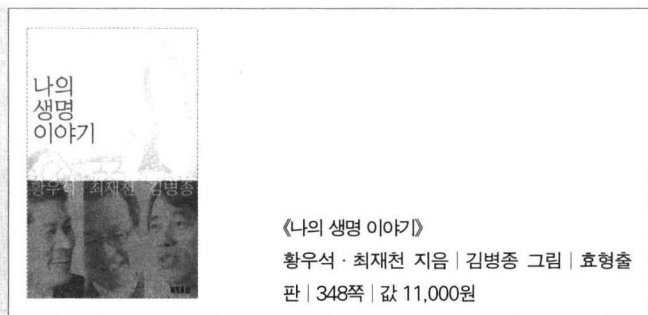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의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4년부터 16년간 국내 유명 과자회사의 신제품개발부와 구매부에서 근무, 4년 동안 같은 회사의 일본 도쿄사무소에서의 파견 근무 이후, 다양한 식문화에 연구하며 후텔식품건강연구소를 운영하기까지, 책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저자 안병수 씨의 이력이다. 책 속에서처럼 그는 유명 제과회사의 중견 간부로서 '과자 만드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며 항상 재미있게 또 열심히 일해왔다'. 책은 그런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고 정반대의 직업을 갖게 된 이유로부터 시작해 '끔찍'하기까지 한 가공식품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 안병수 씨는 '나쁘다는 건 당연히 알지만 왜 나쁜지는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담았다'고 말한다.

항상 '뜨거운 감자' 였던 가공식품,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관한 문제. 이 책을 둘러싼 독자들의 반응 역시 그랬다. 부모, 특히 어린 자녀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

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았다는 반응이다. 책을 읽고 그 날로 식용유와 설탕을 버렸다는 다소 극단적인 얘기도 있다. 더구나 KBS <환경스페셜>, MBC <시사매거진 2580>, SBS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도된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은 이 책의 논거를 뒷받침해주기에 충분했다. 국내 저자가 국내 제품들을 대상으로 그 이면을 속속들이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도 책이 가진 파장은 크다.

한때 웰빙이 생활 전반에 유행처럼 번졌지만 먹거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는 현대인들의 불변한 화두다. 인공조미료나 합성색소 등의 유해물질 문제나 오늘날 가공식품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가중될수록 소비자(독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리_ 홍이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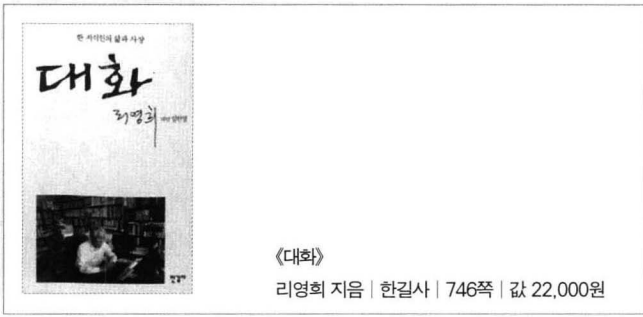
《나의 생명 이야기》
황우석 · 최재천 지음 | 김병중 그림 | 효형출판 | 348쪽 | 값 11,000원

◎ 삽화가 어우러진 생명공학 · 사회생물학의 화음

《나의 생명 이야기》는 1999년 한국 최초로 체세포 복제 젓소 '영롱이'를 탄생시킨 데 이어 2004년 2월 세계 최초로 인간체세포로 복제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고, 올 8월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가장 놀라운 발명품으로 선정한 복제개 스너피를 탄생시킨 황우석 박사의 글이 담겨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책은 대비가 돋보이는 '에세이집'이다. 생명공학자와 동물행동학자 그리고 화가, 서로 다른 세 명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화음을 낸다. 스스로 '칼잡이'라고도 부르는 생명공학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자신의 생명공학 연구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의 선입관과 오해를 풀고자 했다. 그에 비해 밤낮없이 곤충의 사회성을 연구해 온 사회생물학자는 곤충들에게서 배운 민감한 더듬이를 뺀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나간다. 또한 60컷의 그림으로 참여하고 있는 화가는 글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삽화를 거부하고 단상과 함께 그 자체로도 하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책은 황우석 교수가 지휘계통에 있는 연구원이 제공한 재료를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불문율이나 다름없는 과학자들의 윤리규범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빛이 바래기도 했다.

정리_ 신동섭 기자



◎ 시대를 거위한 지식인의 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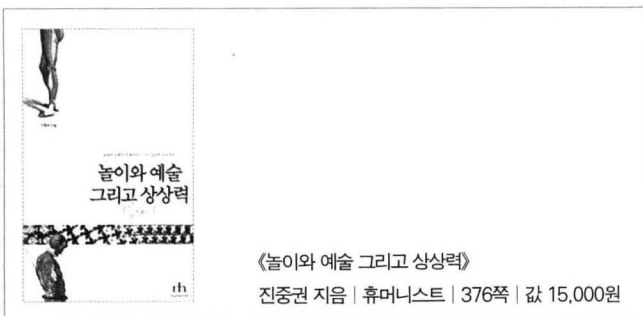
한겨레 고명섭 기자는 “글이 아니었다. 마른하늘 날벼락이었다. 정수리에 꽂히는 대침이었다. 장막을 가르는 칼날이었다. 언론인 리영희 씨가 쓴 모든 글들의 글자 하나하나가 과녁을 뚫고 지나가는 탄환, 어둠을 흔들어 깨우는 타종이었다. 책이 동력이 될 수 있다면 그의 책이야말로 극우반공체제를 통째로 밀어버린 불도저의 동력이었다. 그는 청년 학생들에게 ‘사상의 은인’ 이었고, 반공권력자들에게 ‘의식화의 원흉’ 이었다.”라고 리씨의 책을 평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고회를 맞이한 리영희 선생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로 인해 오른쪽 손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자서전으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대담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2년의 기간 동안 2,700매 분량의 구술을 녹취를 정리했다.

책에는 해방 후 미군정기 남한의 혼탁상에서 6. 25 전쟁의 비극과 한국군의 실상, 4. 19 혁명과 5. 16 쿠데타,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의 국내의 정세까지 한국 현대사의 소중한 증언들로 기억될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한 강원도 전선의 건봉사에 만난 스님에게 충구를 들이댔다가 생사를 초탈한 듯 자신을 타이르던 모습에서 수치심과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와 같이 인간 리영희의 ‘속살’을 읽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선생은 책의 마지막에 “나의 시대적 역할은 끝났어요. 남은 역할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어주는 것뿐이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선생의 마지막 저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정리_ 신동섭 기자



◎ 고정된 틀 깨는 '놀이책', 편집까지도 '놀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K. 롤링은 남편과 이혼 후 영국의 단칸 아파트에서 근근이 살아갔지만 어느 날 기차간에서 불현듯 떠오른 판타지 스토리로 인해 일약 대부호가 된다. 그야말로 상상력으로 밥을 벌 수 있는 특별한 시대, 판타지 콘텐츠들이 영화, 소설, 인터넷 등을 떠돌며 제값을 톡톡히 치르는 때다.

《미학 오디세이》로 골수팬을 확보해 둔 진중권 씨의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은 작금의 대세라 불리는 ‘상상력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무턱대고 “상상력은 힘이 세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잘 발현된 예술 작품 속 놀이들을 통해 상상력이라는 원천을 길어 올리는 방법론이다. 숨바꼭질, 수수께끼, 주사위, 체스, 카드 등의 게임과 놀이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전하는 진 씨는 이 책으로 “기존 사유의 틀에서 해방되라”는 주문을 독자에게 걸어놓는다.

한 독자의 말처럼 책은 “상상력을 갖고 열심히 놀게 해주는 특별한 책”으로 기억되면서 올 한 해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10~20위 권 안에 꾸준히 머물렀다. 현재까지 총 2만 부(11월 말 집계) 판매고를 올린 상태다.

“정말 유쾌하게 읽었다”는 말로 호평을 아끼지 않은 이들이 많다. 철학의 일부인 미학을 기초로 하고 있으니 결코 만만한 텍스트는 아닌 게 분명한데 진 씨의 구술적 글쓰기 덕에 텍스트의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평도 많다. 또한 편집에 있어 그림, 사진자료를 놀이의 도구로써 매우 신선하게 활용했다는 호평도 다수여서 내용, 형식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책으로 인정받았다. 일반 독자들의 반향도 있었지만 출판편집자들 사이에서는 편집면에 있어 예의주시할 만한 책이라는 평가를 종종 받았다는 소문이다.

정리_ 김청연 기자



◎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화려한 대화

지난 11월에 출간된 《대담》은 그 저자가 주는 프리미엄에 더해 생명복제에 대한 뉴스로 어느 때보다 과학과 윤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된 시기에 출간되었다는, 그 시의성으로 화제를 모은 책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대담》의 주인공은 도정일 교수(경희대 영어학부, 비평이론)와 최재천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생물학)다. 표지에 ‘대한민국 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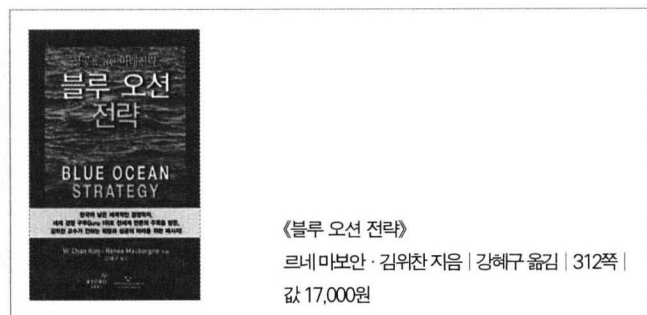
최초의 프로젝트'라는 의미심장한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방대한 저작물의 머리글에서 도 교수는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현대 생물학과 그 연관 분야들은 그동안 인문학이 ‘인간’에 대해 말하고 생각해왔던 방식들에 일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생물학 분야가 내놓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놀라운 신세계의 도래를 알리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어진 10여 차례의 대담과 4차례의 인터뷰를 주제에 따라 13개의 장으로 재구성한 책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를 거침없이 넘나드는 화려한 대화를 펼쳐 보인다. 치열한 설전을 벌일 때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한다.

‘기적의 도서관’ 설립 운동, ‘문화연대’ 활동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시민운동가 중 한사람”인 인문학자 도 교수. 동물행동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대중 및 인문학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는 과학자 최 교수. 두 사람의 만남은 문명 만능의 시대에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인문학적 소양이 어떠한 만남을 이뤄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정리_김지희 기자



《블루 오션 전략》
르네 마보안 · 김위찬 지음 | 강혜구 옮김 | 312쪽 |
값 17,000원

◎ 피나는 경쟁, 그 밖의 무한 가능성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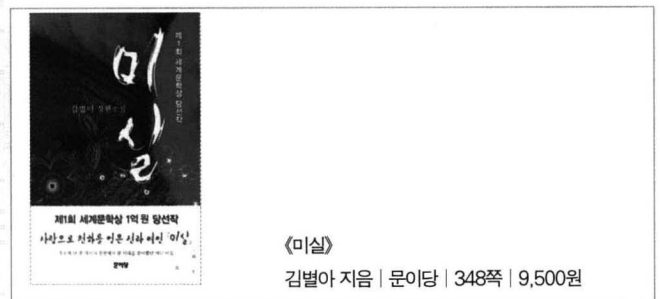
성공한 CEO들이 곱씹는 경영학 용어로 남았다면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 경영론인 것은 분명한데 정치계, 연예계, 출판계, 문화계 등 삼시각에 전사회적 유행어가 됐다. ‘블루 오션 전략’이라는 이론 말이다. ‘블루 오션 전략’은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김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가 1990년대 중반 가치 혁신 이론과 함께 제창한 기업 경영전략론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동명의 책이 소개되면서 일순간 전사회적 관심을 받게 됐다.

‘블루 오션’이란 이제까지 없었던 새 업종이나 서비스 영역의 개척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피 터지게 경쟁하는 시장을 버리고 경쟁 없는 시장을 찾아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영역을 새로 개척해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붉은 피를 흘려야 하는 레드오션 시장을 과감히 버리고 ‘푸른 바다’와 같은 신 시장을 개척하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올 2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출판사에서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30

만 부(2005년 11월 말 기준) 몇 부 판매고를 기록했다.

편집부측은 경영전략서의 대중화 측면에서 이 책의 장점을 손꼽고 있다. 다수의 경영전략서의 이론이 대중들이 접하기에 부담스러운 감이 있었다면 그런 부담을 덜고 있는 쉬운 텍스트라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쟁과 대결이란 화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제안했다는 데서 발상의 전환을 유도한 점을 호평한다. 반면 이 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무한독점 시장을 의미하는 블루 오션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망망대해에서도 항해하고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 전략은 레드 오션에서 사용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겠냐는 지적이 대체적인 비판의 요지다.

정리_김형연 기자



《미실》
김별아 지음 | 문이당 | 348쪽 | 9,500원

◎ 신라의 ‘팜므 파탈’, 그 안의 ‘주체적 여성성’

올 2월에 나온 김별아의 장편소설 《미실》은 1억 원 고료의 ‘세계문학상’ 제1회 수상작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화랑세기>에 나오는 신라의 ‘요부’ 미실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이라는 사실이 그 화제성을 더했다.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는 1995년 필사본이 처음 공개되었지만 그 진위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중이라 《미실》은 그 출간 배경부터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김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국神國을 자처했던 신라에는 신국 나름의 도道가 있었고, 미실은 요부와 성녀를 한 몸에 구현한, 신국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역사 속에 잠시 행간으로 비쳤을 뿐인 이 여인은 작가의 거침없는 상상력과 매력적인 화술에 의해 되살아난다. 왕을 색색으로 섬겨 왕후나 후궁을 배출했던 모계혈통 중 하나인 대원신통의 여자 일대기. 신라 전성기의 3대에 걸친 임금들과 당대의 영웅호걸들을 미색으로 녹여내고 끝내는 스스로 최고 권력을 획득한 여걸. 미실이란 캐릭터는 ‘팜므 파탈’ (악녀)에 가깝지만 성적性的 욕망에 당당했고, 세상을 자기중심으로 재편했던 주체적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미실》은 역사에서 소재를 따와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세공하는 ‘팩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최근 소설 트렌드의 최전방에서 있는 작품인 것이다. 하지만, 그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작가의 공력이 돋보인다. 당대의 풍속과 문화를 적절히 배치하여 읽는 재미와 긴장을 유지시키고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신라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펼치고 있다. **문이**

정리_김지희 기자